

1일 Market Index			
↑ 코스피	8788.38	↓ 코스닥	1050.03
	(+312.23)		(-24.77)
↑ 금리 (연이자율)	3.790	↓ 환율 (원/달러)	1506.95
	(+0.059)		(-0.95)

metro® 경제

엔비디아 젠슨황 이번엔 '삼겹살 회동' 5일 기업총수 회담 03



10% 급등 '34만전자'... 시총 2000조 돌파

코스피 전체 시총 7000조 넘어서 삼성전자 2040조, 코스피의 28% 글로벌 기준 11위, 2위 기업 중 2위 하이닉스·LG 등 IT기업 주가 급등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단일 기업 시총이 200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반도체와 IT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자 코스피 지수는 장 중 8874.16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0.09% 오른 34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총은 2040조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약 7237조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한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11위 수준으로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TSMC(약 3000조원)에 이어 2위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25% 급등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약 191% 오르며 연일 상승세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AI 서버 확산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생산 역량을 갖



내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춘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았다. 평가. 약점으로 지적돼 온 고대역폭 메모리(HBM)에서도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세계 최초로 7세대 HBM인 'HBM4E'의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 당초 올해 3분기(7~9월)로 예상하던 공급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삼성전자는 2월 세계 최초로 HBM4(6세대)를 양산 출하하는 등 올해 들어 인공지능(AI) 메모리 분야에서 '최초' 타이틀을 선점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시장에서 빠르

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밋빛 실적 전망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43조601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올해는 35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투자사 서스퀘어나의 메히디 호세이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 의견 '긍정(Positive)'과 목표주가 85만원을 제시했다. SK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61만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400

만원으로 올렸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공간여력 우위, HBM 시장 진입 본격화, 파운드리 수주 확대 등이 창출력 대비 현저히 저평가 중"이라고 했다. 코스피도 8788.38에 마감하며 '9천피' (지수 9000선)에 살짝 다가섰다. 지수는 '9천피(코스피 9000)'까지 불과 211.62포인트를 남겨 두게 됐다. (4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수출 훈풍 연간 무역흑자 기록 5개월 만에 넘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을 타고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단 5개월 만에 역대 연간 최대 무역흑자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5억 달러, 수입은 20.8% 증가한 608.0억 달러로 269.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이로써 올해 1~5월 누적 무역흑자는 1091억 달러를 기록, 종전 연간 최대치였던 2017년의 952억 달러를 조기 경신했다. 5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상회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산업부, 5월 수출액 877.5억 달러 올해 누적 무역흑자 1091억 달러

일평균 수출액 역시 42.8억 달러로 사상 첫 40억 달러선을 돌파했다. 일등 공신인 반도체는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유지와 단가 폭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69.4% 급증한 371.6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24.2%)과 바이오헬스(+5.2%) 등 유망 소비재도 활황을 보였다. 다만, 자동차(-5.9%)와 일반기계(-6.3%)는 조업일수 감소와 물류 차질 등으로 다소 주춤했다. 시장의 관심은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여부로 쏠린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추세를 감안해 보면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던 9200억 불 이상,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9500억 불에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실제로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증권사에서도 말하는 1조 불 달성도 이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가격 인상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추격 나선다

TSMC, 하반기 3나노 15% 올릴 듯 이후 내년에도 최대 10% 인상 무계 첨단공정 가격 낮은 삼성 대안 부상 2나노 수율 60%대 '안정적 양산'

TSMC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을 배경으로 첨단 공정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2nm(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 수율 개선과 AI 반도체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고객사들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올 하반기에 주력 선단 공정인 3나노 가격을 최대 15%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7년에 5%~10% 수준의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3나노 공정 수요는 주로 스마트폰 시스템온칩(SoC)이 주도해 왔지만 최근 A

I 서버 플랫폼 교체 주기가 본격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까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면서 3나노 웨이퍼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TSMC의 가격 인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TSMC 대비 첨단공정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가 확대될 경우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게이트올라라운드(GAA) 공정을 양산하는 등 차세대 공정 경쟁력 확보에 힘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발목을 잡아 온 수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수율이 현재 6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수율 60% 안팎을 안정적인 양

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엔트로픽의 칩을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엔트로픽은 최근 진행한 시리즈 H 투자 라운드에서 650억달러(한화 약 98조원)를 유치했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투자 참여 기업 중 첨단 파운드리 사업을 보유한 곳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점에서 향후 AI 반도체 위탁생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뿐 아니라 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고성능 시장으로 좁히는 차량용 메모리 분야에서는 최근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LPDDR, UFS 등 저전력 메모리 솔루션을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고성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자율주행차

용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해 사업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LPDDR5X·LPDDR5 등 고성능 D램 차량용 풀피규격인 AEC-Q100을 충족하는 고신뢰성 메모리, 첨단 V낸드 기반의 차량용 SSD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워 1위 자리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TSMC의 가격 인상이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파운드리 반사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며 "현재 반도체 수요가 워낙 강한 상황이어서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가격 인상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는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이명박·박근혜 野선거운동 동참...與 "윤석열까지 감옥 삼인방" /사진 뉴시스
- ▲홍준표, 박근혜·이명박 유세 겨냥 "전직 대통령 답장은 행동"

- ▲이준석, 새치기 논란에 "한적한 때 투표장 방문...새치기는 착각"
- ▲유영하 "박근혜, 단종처럼 모함 벗고 복위...진실은 감춰지지 않아"

- ▲스타벅스, 카드 잔액 '전액환불' 진행...1인당 200만원까지 신청
- ▲정부, 폐교 활용 사업 공모 진행...'지방 소멸 극복 모델' 마련